

평화교육(미래를 위한 교육 세계를 위한 비전)*

강순원**

평화학습을 위해

by Kenneth Boulding(1992)

세상이 진정으로 평화를 필요로 할 때
쉽 없이 배우고 가르쳐야 한다네.
가르치고 배워야 한다네.
전쟁이 줄어들고 평화가 자라도록
평화는 그 모든 축복과 함께
우리 머리 속의 사용되지 않은 잠재력으로부터 온다네.

(서문 중에서)

평화교육은 개인과 사회에 만연한 폭력의 문화를 평화의 문화로 전환할 수 있는 힘 혹은 능력을 길러주는 교육적 접근이다. 이 책에서는 ‘평화는 전쟁의 부재(absence of war)’라는 일반적인 이해를 넘어

* 해리슨 & 모리슨 지음(2003). 박정원 역. 서울: 오름

** 한신대 교수, 국제이해교육학회장

서서 요한 갈통(J. Galtung)이 분류한 직접적 폭력과 구조적 폭력(structural violence) 모두를 극복하기 위한 포괄적인 평화교육을 지향하고 있다.

이 책의 저자 해리스(Ian M. Harris)는 미국 위스콘신 밀워키 대학, 교육학과에서 교육철학자로 평화교육을 연구하고 실천하였으며, 현재는 은퇴하고 국제평화연구학회(International Peace Research Association)의 재단(IPRA Foundation)이사장으로서 평화교육분과(Peace Education Commission, PEC)에서 활동하고 있다. 공동저자인 모리슨(Mary Morrison)은 코네티컷 평화교육연구소(Pax Educare) 소장으로서 평화연구자이자 평화활동가로서 평화운동에 참여하는 실천적 삶을 살고 있다. 본 책은 1988년 해리스 교수가 저술한 것을 2003년 개정판을 낼 때 모리슨이 공동저자로 참여하여 새롭게 재구성한 것이다. 2001년 9·11사건 이후 미국 내에서 평화의 의미가 바뀌면서 이에 따라 여성주의 이론가들의 입장이 반영되고 비폭력과 가족의 역할 등에 대한 부가적 논의가 다루어졌는데 이 부분이 2003년 개정판에 반영된 것이다. 이 책의 역자인 박정원은 현 한국교원대학교 교수로 ‘평화교육연구’ 수업을 강의하였으며 외교학과 정치학을 바탕으로 인권과 지구시민사회와 관련된 연구를 하고 있다.

이 책은 교사, 교수, 학자, 종교지도자, 지역지도자, 평화운동활동가를 포함한 대중을 대상으로 저술되었기 때문에, 평화교육의 개념과 관련된 주요이슈들을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다. 역자는 이 책이 포괄적이고 다학문적으로 평화교육을 논한 점을 장점으로 언급하면서도 이 책에서 인용한 사례들이 모두 미국적 맥락에서 도출된 것이라는 점을 한계로 지적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화교육의 총

체적 성격을 고려했을 때, 본 책이 지향하는 평화교육개념과 이해는 한국적 상황에서도 충분히 논의될 수 있다. 특히, 식민지와 분단, 권위주의적 정치지배의 경험, 빠른 경제성장 그리고 지구화라는 지역적(local)이면서도 지구적(global)인 흐름 속에서 폭력의 문화에 노출되어 있는 독특한 한국의 상황을 고려했을 때, 보다 광범위하고 다학문적인 평화교육 논의는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모두 11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책의 내용을 통해 한국상황에 적실한 평화교육적 의미를 탐색해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제1장은 평화교육의 정의에 대한 것이다. 기본적으로 평화교육은 비폭력, 사랑, 연민, 모든 생명에 대한 존중이라는 철학에 기초하며 듣기, 성찰, 문제해결, 협력과 갈등해결을 포함하는 기술을 익히는 과정으로서 안전한 세계 창조와 지속가능한 환경을 건설할 수 있는 기술, 태도 그리고 지식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사회구조와 사고방식을 변화시킴으로서 군사주의(militarism)에 기초한 일상세계의 폭력을 전환하고자 하는 것이 평화교육의 목표이다. 이에 따라 본 장에서는 평화교육의 10가지 목적(평화 개념의 풍부함을 파악하기; 공포를 다루기; 안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전쟁행위를 이해하기; 문화 간 이해를 증진시키기; 미래지향성을 갖도록 하기; 과정으로서의 평화를 가르치기; 사회정의를 수반하는 평화개념 정립하기; 생명존중을 자극하기; 갈등을 비폭력적으로 관리하기)을 제시하며, 평화교육자들의 역할은 사람들이 건설적 방식으로 갈등에 대처하며 살아가는 법을 배울 수 있게 하기 위해 갈등의 위험성에서 나아가 갈등의 가치까지 다루는 것이라고 제시한다.

제2장에서는 전쟁과 평화 및 평화교육에 대한 종교적, 역사적 논

의를 다루고 있다. 그리스 신화를 비롯하여 세계의 주요 종교인 유대교, 힌두교, 불교, 기독교, 이슬람교, 도교 등은 모두 평화를 중요한 미션으로 삼고 있으며, 에라스무스, 코메니우스, 칸트, 톨스토이, 몬테소리, 허버트 리드, 테이야르 드 샤르댕, 다닐로 돌치, 요한 갈통 등의 학자들 역시 평화교육과 평화 개념을 정립하는 데 기여하였다. 이에 대해 본 책에서는 평화교육에 대한 **서구의 기여**라 명명하였다. 그리고 미국의 사례로서, 아메리카 대륙 정착시기부터 퀘이커나 메노나이트 등 기독교 제 교파의 정착에 힘입은 평화신학과 평화교회의 역사를 언급하고 있다. 또한 20세기 공산주의와 파시즘의 등장에 따라 평화주의가 비애국주의적인 개념으로 이해되던 시기를 거쳤고, 그런 와중에서 진보주의 교육학자인 존 듀이의 민주주의를 통한 평화의 구현과 마틴 루터 킹 목사의 인종차별 반대투쟁, 그리고 미국의 베트남전 참전과 군사주의에 대한 반대 목소리를 포함한 평화운동활동과 미국평화연구소 설립 등을 소개하였다.

제3장에서는 평화교육의 여러 유형으로 인권교육, 환경교육, 국제교육, 갈등해결교육 그리고 발전교육을 소개한다. 또 평화연구와 평화교육의 특징을 비교함으로써 평화라는 용어의 정치적 속성에 주지하며 저명한 평화교육자 베티 리어든(Betty Reardon)의 말을 빌려, 평화연구와 평화행동 사이의 인터페이스(interface)로서 평화교육을 소개한다.

제4장에서는 평화수립 능력부여교육으로서 평화교육을 소개한다. 여기서 전통적 미국교육에 내재된 폭력(학교의 계급 재생산, 가정폭력, 미디어 폭력, 학교의 위계질서 등)을 논하는데 이를 전환하기 위한 평화수립 능력부여교육을 소개하며, 그 단계로 상상력을 키우고,

그 안에서 개인적인 변화를 경험하게 하며, 평화교육을 공부하는 학생들이 책임있는 시민으로서 정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국방정책과 같은 공적 이슈를 알려줄 필요가 있음을 언급한다. 또한 평화수립 능력부여교육의 또 다른 측면으로 리더십훈련을 소개하고 마지막 단계로서 행동에 나서도록 하는 것이 평화수립 능력부여교육이라고 말한다.

제5장에서는 평화교육의 장으로서 지역공동체, 특히 그 안에서 교회와 같은 종교기관 그리고 학교(초중고)를 두고 어떻게 평화교육을 시작할 수 있을지에 대해 논의한다. 특히, 학교 평화교육은 교사들이 평화교육을 이해하고 교육활동으로 이행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접근 그리고 교육과정에서 어떻게 평화교육을 볼 수 있을지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에 따라 교사들이 평화관련개념을 어떻게 익힐 수 있는지와 네트워크 구축의 필요성을 논하며, 평화교육을 기존과목에 포함시켜 수행하는 접근과 독립교과로서의 접근을 제시한다. 또한 수학, 작문, 미술, 생물, 영어, 역사 등 기존 교과에서 평화와 정의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저자들은 교사훈련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교사들이 평화교육자로 훈련받을 수 있는 예시(국제평화연구소 교사워크숍 등)를 소개한다.

제6장에서는 평화교육의 핵심개념과 주제들 - 국방문제(국방예산 비용 전체에 대한 이해, 핵무기와 군비통제 등), 세계질서와 유엔(국제기구들의 역할, 유엔군의 평화유지활동 등), NGO, 갈등해결과 문화간 대화 그리고 비폭력(간디, 킹, 크리슈나무르티르), 회복적 정의에 대해 소개한다. 우선, 평화를 알기 위한 필요충분조건으로서 그 반대개념인 폭력의 근원을 이해해야 한다는 전제 하에 폭력의 근원

을 세 유형 - 인간성에 내재된 공격성, 인간의 공격성과 좌절감이 초래한 적대감의 결과, 전쟁영웅만을 찬사하는 사회적 조건- 으로 나누어 평가한다.

제7장에서는 평화교육의 기초로서 가족과 아동기-청소년기-성인으로 이어지는 인간발달 과정과 도덕교육(콜버그의 도덕발달 단계에 따라 탐색)에 대해 논의한다. 이 장에서는 폭력과 전쟁이 만연한 사회체제를 변화시키는 길은 곧 개인 자신을 변화시키는 것이라는 가정에 기초한다고 전제한다. 따라서 인간 상호작용의 기초를 형성하는 가족은 아동에게 지구시민으로서의 첫 교육을 제공한다고 본다.

제8장에서는 평화교육이 과연 평화를 만드는데 유용한 접근인지를 묻는다. 이에 대한 답을 풀어나가기 위해 본 장에서는 평화교육과 관련하여 예민한 이슈들, 예를 들어, 평화교육의 프로파간다적인 성격(예: 의식화를 통한 국방에 관한 주류관점에 도전)과 정보제공의 차원(예: 가치중립적인 평화교육)에서의 평화교육을 논의하고, 군사문화에 기초한 폭력성이 숨어있는 언어의 문제와 평화교육의 장단기적 성격(예: 신념체계와 삶의 방식을 평화친화적으로 만들기) 그리고 감정의 문제, 다른 가치와 태도에 대한 이해, 미디어에서 나타나는 폭력의 문제, 마지막으로 평화교육에 대한 평가(총괄평가와 형성평가 그리고 양적 접근과 질적 접근)를 논한다.

제9장에서는 교육자들이 ‘전쟁문화(culture of wars)로서의 학교’ 안에서 평화교육을 도입하고자 할 때 직면하게 되는 심리적, 문화적, 정치적, 교육적 장애물들에 대해 다룬다. 마그누스 하벨스루드의 ‘평화교육은 교육 속의 평화를 전제한다’는 말과 함께 제10장은 평화교육의 실천으로서 평화 페다고지를 소개한다. 특히 평화교육자들이

자신들이 만들어 가는 학습환경에 특별한 관심을 가져야 함을 강조하며, 프레이리와 듀이가 강조한 타인에 대한 존중에 기초한 자발적이고 창조적인 활동을 장려하는 평화교육을 언급한다. 이는 곧 민주적인 교실 속에서 이루어지는 평화교육을 강조하는 것으로, 이를 위해 협력적 교육의 전통을 살리고 평화 페다고지(민주적 공동체 만들기, 협력 가르치기, 도덕적 민감성(moral sensitivity)을 발달시키기, 비판적 사고 장려하기, 자존감(self-esteem)을 제고하기) 원칙을 중시해야 함을 보여주고 있다.

마지막 결론으로서 제11장은 미래와 평화교육을 논한다. 평화연구는 미래학을 포함하는데, 여기서 교사들은 학생들로 하여금 미래의 모습을 그려보고 그 안에서 중요한 이슈들을 파악하며 어떻게 그 변화를 수용하고 그 안에서 받는 도전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를 준비하도록 도와줄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평화교육은 현재의 폭력적인 군사주의 문화에 내재된 가치가 아닌 생명존중 가치를 그리고 군사주의 문화의 공포 이미지와는 다른 비폭력 세계의 비전을 제시해주면서 학생들이 미래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미래에 대한 계획을 짜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이에 따라 물질주의와 소비자 중심의 가치에서 관대하고 타자의 복지를 고려하는 가치로 전화하는 전환시나리오(transformation scenario)를 통해 평화교육자들은 학생들이 전환적 가치를 긍정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한다. 여기에는 국방에 대한 새로운 접근과 여성주의의 도전, 영성 그리고 생태학과 지속가능성 등의 주제가 포함된다.

해리스와 모리슨의 『평화교육』은 국제이해교육이 지향해야 하는 기본 주제들을 동시에 포괄하고 있다. 따라서 평화교육을 논할 때

고려해야 하는 목표, 내용, 방법 및 네트워크 등은 국제이해교육활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비록 이 책이 미국이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축적된 이론과 실천활동을 중심으로 기술된 것이기는 하지만 전지구적 상호의존적 환경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평화교육적 담론과 기법을 동일하게 ‘지금 이 자리에서’ 제시해주고 있다. 이 책이 구성하고 있는 모든 11장을 하나하나 따라가면서 평화교육을 구체화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이 책을 한국어로 다시 읽으면서 절실히 다가온다.

무엇보다 한국어본 출판을 기뻐하며 해리스교수가 보내준 『평화교육』을 『국제이해교육연구』 서평란에 실을 수 있게 된 것은 내게도 아주 큰 행운이다. 해리스교수는 2002년 IPRA대회 참석차 한국에 왔다가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8층 회의실에서 국제이해교육학회 소모임에 참석하여 ‘미국의 평화교육’을 우리에게 소개해 준 적이 있다. 그는 독실한 퀘이커신자로서 비폭력적 평화교육을 실천하고 특히 미국 내 소수자인 인디언 청소년들의 대안교육활동에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진실된 평화교육자이다.

회원 모두가 일독해 보시기를 진심으로 강권한다.